

한화그룹 노조 무력화·지배구조 변경, 세습 경영 포석? 금속노조, 23일 국회 토론회 ... “한화 노사관계 개선 시급” 주장

한화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진행하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화그룹 사업재편의 문제와 노사관계 전망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 모두 한화그룹이 노동조합에 대해 구시대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황현일 창원대 교수(사회학과)는 한화그룹 노사관계 특성을 받게했다. 황 교수는 “한화그룹 기업구조가 경영 승계 구도와 같아 사실상 계열사들은 사용자, 결정권자가 들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아들 삼 형제에게 그룹 지분과 주요 사업을 넘기고 있다. 첫째 김동관 부회장이 방위·제조 산업, 둘째 김동원 한화생명이 금융, 셋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유통·레저산업을 맡는 모양새다.



황현일 교수는 “계열사들이 경영권 승계를 앞둔 3세대들 눈치 보느라 매년 노사교섭을 늦추고 노동조합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본사는 계열사가 책임질 일이라면서도 실제로는 좌지우지한다. 영향력은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시대적이고 잘못된 노조 인식 탓에 한화그룹 노사 갈등 심각”

한화그룹의 노동조합 인식도 문제다. 황 교수는 “한화그룹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파트너가 아닌 하위 대상으로 본다”라며 “한화그룹의 편견 탓에 노사관계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황현일 교수에 따르면 한화그룹과 계열사들은 노동조합을 제조업 노동자들만의 조직으로 깎아내리곤 한다. 또 회사 경영과 노사관계에서 제조업·고졸 생산직 노동자와 대졸 사무직을 구분하는 성향이 있다.

금속노조 내 한화그룹 사업장은 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와 대우조선지회 두 곳이다.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우조선(현 한화오션)에서 각각 2014년, 2023년 한화그룹 소속이 됐다.

황현일 교수는 “두 곳 사업장 노사 갈등 정도가 심각하다. 매각

인수 과정에서 노사 간 긴장감이 생길 순 있지만, 불편한 관계가 오랜 시간 이어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는 한화그룹 탓”이라고 비판했다.

황현일 교수는 한화 자본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황 교수는 “한화오션 등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도 문제 삼아 개별 조합원들을 고소 고발하고 있다”라며 “한화 자본은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을 인정,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화그룹 사업·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송덕용 공인회계사는 한화그룹 지배구조를 설명하며 “한화그룹은 지난 몇 년간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한화그룹 지배구조 개편 목적, 기업 세탁과 경영권 승계”

송덕용 회계사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사업지주회사와 중간지주회사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솔루션이 일종의 중간지주회사로서 제조 관련 자회사들을, 한화생명이 금융계열사들을,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유통 및 호텔 관련 계열사들

을 지배하고 있다.

송덕용 회계사는 한화그룹 지배구조를 두고 “기업 세탁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송 회계사는 “한화그룹은 계열사들을 여러 차례 뗐다 붙이는 과정을 불필요하게 자주 벌이고 있다”라며 “그 결과 방산·제조 계열사, 금융 계열사, 유통·레저 쪽 계열사가 3세 경영 승계와 분할에 유리한 모양을 갖추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한화창원지회가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한화그룹 노사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명기 노조 한화창원지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공장 상황을 전하며 “사측이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데다, 무엇보다 금속노조가 교섭 대표노조로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김 지회장은 “노동조합 무력화, 노조 파괴를 위해 기업 분할·합병도 불사한다”라며 “노동조합 활동 방해, 부당한 인사고과·전환 배치, 잔업·특근 배제 등 금속노조 탄압과 차별로 조합원들 피해가 크다”라고 토론했다.

한화오션 상황도 비슷하다. 김유철 노조 대우조선지회장은 “사측이 단체협약을 어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조합과의 약속은 휴지 조각 만들기 일쑤”라며 “일관된 금속노조 무시와 이른바 패싱으로 조합원들이 자괴감, 무력감을 호소한다”라고 털어놓았다.

김유철 지회장은 “다른 대형조선소들은 수주 계약을 계속 따는데, 한화오션 사측은 상선 분야를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의심될 지경”이라며 “과연 조선소 운영에 의지가 있는지, 또 노사관계를 풀어나갈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저 회사의 모든 움직임은 오로지 경영권 승계에만 맞춰져 있다”라고 말했다.

